▣ 그림 여행

크리스티나의 세계

(Christina's World c. 1948)

앤드루 와이엇
(Andrew Wyeth 1917 - 2009)

패널에 템페라 81.9 cm x 121.3 cm
뉴욕 MOMA

제목의 어감이 어쩐지 고독한 느낌을 자아내듯 벌판에 버려진 듯한 여인의 뒷모습이 불안하다. 화면의 전체를 차지하는 벌판 그리고 그 위에 저 멀리 보이는 집과 헛간. 회색으로 그려진 그 집은 돌아가야 할 곳인지, 떠나온 곳인지 분명치 않다. 지평선 너머 보이는 하늘에 회색 구름이 몰려오는 듯 날은 흐리기만 한데 벌판 한가운데는 햇빛이 부분적으로 비치는 것 같기도 하다.

미국 화가 앤드루 와이엇은 어느 여름날 별장의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다가 벌판을 기어가고 있는 한 여인을 보았다. 이웃에 사는 애나 크리스티나 올슨이라는 부인이었고 그녀는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를 쓰지 못했다. 그녀의 모습에 영감을 받아 와이엇은 이 그림을 완성했다.

어렸을 때부터 학교 정규교육을 받지 않고 아버지에게 그림 교육을 받은 와이엇 자신도 병약한 사람이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던 그의 작품세계에는 항상 창밖으로 내다본 세상이 존재했다. 자아가 존재하는 내면으로부터 세상이 존재하는 바깥을 내다보는 시선이 그의 그림이었다. 이 그림 속에는 저 멀리 언덕 너머의 세상을 바라보는 여인의 시선이 창밖을 바라보는 화가의 시선으로 포착되어 있다. 겹겹이 쌓여있는 시선의 창문이라고 할까.

크리스티나가 언덕 너머 저 집으로 가려고 하는 지, 아니면 그곳으로부터 떠나와 되돌아보는 건지 알 수는 없다. 다만 그녀의 병약한 뒷모습이 그녀의 의지가 무엇이든 실행할 수 없다는 막연한 비감을 암시한다. 연약한 존재가 바라보는 압도적인 어떤 세계와 그 세계로 가려고 하는 의지를 가로막는 세상의 한계가 느껴지는 그림이다. 살면서 누구나 느끼는 고독과 슬픔, 불안감과 절망감, 그러나 또 어쩔 수 없는 갈망이 그림 전체를 뒤덮고 있다. 떠나온 그 무엇을 향해 끊임없이 갈망의 시선을 보내는 상실의 슬픔, 되돌아가고자 하는 회귀의 욕구가 가슴 속 깊이 사무친다.

김 동백

친환경매장
저렴합니다.
알려드립니다.
추천합니다.
관, 겉관 필요없습니다.
방부처리 하지않습니다.
장의사 이효섭

장례인도
FDR 4701
시신방부
EMB 9702
장례보험
4287740
C.714.951.2520
O.714.870.6303
Scott McAulay Family(FD 1593)
501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2

Linda Beauty
린다뷰티영구화장
Permanent Make-up
• 메이크업 아티스트 •
매직의 손
- 30년 경력 -
• Eyebrow
• Eyeline
• Lipline
• 탈모커버
• 3D 자연눈썹 (마이크로브레이딩)
• 남자눈썹 전문
• 점, 검버섯 레이저 (5불 or 10불) (한개 크기에 따라서)
★잘못된 영구화장 깨끗하게 문신제거!

- 영구화장 개인지도 -
(배우고 바로 손님 모실 수 있음)
T.562.896.2024
예약문의
9828 Garden Grove Blvd. #107, Garden Grove, CA 92844